

**美, 韓·日 수호이機
구입검토' 중지 설득**

미국방부는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러시아제 수호이27 전투기를 훈련, 조사용으로 각각 수대씩 구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구입을 중지하도록 韓日(한일) 양국을 설득중이라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미군사주간지 디펜스뉴스 최신호를 인용 보도했다.

미국방부는 구입중지 설득과정에서 수호이 27기가 미군 무기체계와 맞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디펜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내년도 예산에서 5천만엔을 배정, 항공자위대 조종사 2명을 러시아에 파견해 수호이 27 탑승훈련과 기체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용으로 수호이 27기를 몇 대 구입할 예정이다.

한국, 러 미사일 구매 추진

한국은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대신 러시아 S-300 방공시스템의 구매를 고려중이라고 미국의 방위산업 전문지 「디펜스뉴스」가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동 지는 지난 수년간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한국에 판

매하려 했지만 아직 성사시키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한국의 움직임은 미국에 뼈아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펜스 뉴스」는 이어 최근 들어 정치나 이념과는 무관하게 경제성을 앞세운 러시아의 무기판매 전략이 동아시아 시장에 먹혀들고 있다면서 지난 94년 이후 러시아의 대한 무기판매는 2억5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잡지는 92~94년 동안 54%(66억 달러)에 이르렀던 미국의 동아시아 무기시장 점유율은 러시아·중국을 물론 유럽 국가들의 도전때문에 앞으로 감소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방부는 한국의 방어용 미사일 선전에 즈음하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등이 방문, 자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경쟁상대는 러시아의 S300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의 대당 1억5천만 달러의 2분의 1수준이면서 성능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 F-22 비용 초과분
공군의 추산보다 높아**

미국의 Office of Secretary of Defence(OSD)는 록히드마틴/보잉사의 F-22 사업에 대한 비용 초과분이 미 공군이 예측한

금액보다 20억 달러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군 합동 비용 산출팀은 지난 96년 12월에 F-22 사업이 당초 예산을 150억 달러(개발에서 20억 달러, 생산에서 150억 달러) 초과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OSD의 검토에 따르면 초과분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미 공군은 국방 조달 위원회가 승인한 계약 업체들과의 합의에 따라 F-22의 대당 가격을 낮춤으로써 생산비용 초과분에서 130억 달러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생산방법 개선과 장기 조달이 있다. 개발비용 부족분은 생산 개시를 늦춤으로써 충당될 것이다. 록히드마틴사는 '비용이 150억 달러 초과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않았을 때'라고 말했다.

**獨 DASA 현대와
AT-2000 합작**

다임러벤츠 에어로스페이스(DASA)사는 제안된 AT-2000 고등 훈련기 및 공격용 경항공기 프로젝트에 현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영국의 Flight Intl지가 보도했다.

DASA사는 우리 나라 공군에 100대의 훈련기를 조달하기 위해

삼성/록히드마틴의 KTX-2와 경쟁하고 있다. 동사는 현대의 참여로 인하여 '우리 나라와 국가적 차원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작년 말 우리나라 정부는 KTX-2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계속 진행시킬 것인가 아니면 고등 훈련용 체트기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또 다른 프로젝트 중에 양자택일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스페인의 CASA와 영국의 브리티쉬 에어로스페이스(BAe)사는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호크 훈련기를 제안하면서 입찰에 응한 바 있다. DASA에 따르면 현대는 중앙 및 후방의 기체와 꼬리날개의 부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T-2000에는 유로젯 EJ200 엔진 1대가 장착될 것이며, DASA의 추산에 의하면 약 13억 달러의 개발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당 가격은 1,500만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美 육군 RAH-66을 위한 추가 자금 요구

보잉/시콜스키 RAH-66 코만치 정찰/공격용 헬리콥터에 대한 비행 시험이 6개월간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자금지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원형기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98년 3월부터 9월까지 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육군은 올해에 비행 시험의 중단을 막은 이후, 98년에도 유사한 작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4천만 달러의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잉/시콜스키사는 96년 1월 코만치 원형기의 첫 비행을 실시한 이후 35시간의 시험을 완료했다.

비행 시험은 6월 30일에 재개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97년의 목표는 전방 속도 170kt, 측면과 후방 속도 45kt와 80kt의 속도로 90도 스냅 턴(snap turn)을 실현하는 것이다.

보잉/시콜스키사는 현재 코만치 실증/비준을 위한 '제3단계'

사업으로 17억 달러를 받아 일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01년까지 계속될 것이며 여기에는 원형기 2대의 비행 시험과 이외에 육군의 평가를 위한 6대의 '초기 운용 능력' RAH-66의 제작이 포함되어 있다.

대만, 신형호크미사일 발사성공

대만은 1일 호크 지대공 미사일의 개량형에 대한 2차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군대변인이 발표했다.

군대변인은 대만 북부에서 실시된 정례 군사훈련에서 3세대 호크 미사일 2기가 발사돼 목표를 맞췄다고 전했다.

대만은 지난달 개량형 미사일에 대한 1차 실험 발사를 실시했다. 대만은 3세대 호크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패트리엇 미사일과 공동 배치해 특히 인구가 밀집돼있는 자국 북부를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전략이다.



코만치가 계속 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